

광주 문화·체육 분야 국비 역대 최대

전년보다 5.2% 늘어난 1729억원...아특회계 첫 500억원대 비엔날레 AI라키비움·아시아캐릭터랜드 등 주력사업 본격화

광주시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비엔날레 AI라키비움·아시아캐릭터랜드 등 민선 8기 주력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3년도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544억원보다 185억원 증액된 1729억원(93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지자체) 사업은 지난해 444억원보다 70억원이 늘어난 51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처음으로 5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광주EBS 아시아캐릭터랜드 구축, 디지털아트 컬처랩 운영, 아시아문화기술실증센터 운영 등 7건의 신규사업과 30건의 계속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도 냈다.

구체적으로는 1995년 출범 후 세계 5대 비엔날레로 도약한 광주비엔날레 작품을 아카이빙하고 상설 전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온라인 라키

비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5억원을 확보했으며, 광주EBS아시아캐릭터랜드 조성비 58억원도 반영됐다.

시는 인지도가 높은 EBS 캐릭터와 5G실감콘텐츠 등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을 결합해 최첨단 하이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 교육을 접목한 가족형 문화체험공간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플랫폼도시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광주시는 또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지맵(GMAP)의 디지털아트 컬처랩 구축·운영비 30억원이 반영돼 유네스코 창의도시간 교류를 통한 콘텐츠 창작자와 인공지능(AI)과의 융복합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미디어아트 교류 거점공간으로 조성해 갈 계획이다.

시는 올해 개관한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의 첨단실감 콘텐츠 장비를 활용해 문화콘텐츠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첨단 문화기술 실증센터 구축 사업비 6억원도 확보했다.

계속사업으로는 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 조성 사업비 26억원, 첨단실감콘텐츠 인력양성 통합플랫폼 40억원, 비엔날레전시관 건립비 7억4000만원 등이 모두 반영돼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관광분야에서는 월봉서원 문화예술체험복합관 건립사업비 40억원, 예술관광중심도시 육성사업비 18억원, 서창향토문화마을 7억5000만원,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3억4000만원 등 활력도시 광주를 위한 인프라 구축예산이 반영됐다.

체육분야에서도 광주월드컵 경기장 옥상트랙 개보수 6억9000만원, 서구 반다비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19억원 등을 확보함에 따라 일상에서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 복지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민선 8기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도약을 위해 요청한 문화예술 분야 사업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시민들이 있는 문화중심 기회도시 광주를 가시화하는 동력을 확보한 만큼 각종 국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제한 급수 막자” 광주 공공기관 절수 앞장

변기 내 벽돌 투입·지하수 사용 등 최대 70% 물 절약

광주시 공공기관들이 제한 급수를 막기 위한 물 절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50곳은 최근 극심한 가뭄 상황에서 공공기관부터 물 절약을 실천하자는데 뜻을 함께 하고, 수압저감 조치를 비롯한 기관별 상황에 맞는 절수기 설치, 변기 내 벽돌·페트병 투입, 상수 대신 지하수 사용 등을 하고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세면대 수전 절수기기를 설치했으며, 북구청은 청사 내 양변기 전체 벽돌 투입과 세면대 전체 수전 절수기기를 설치, 서구청은 청사 세면대 전체를 자동센서 수전으로 교체했다.

변기 내 벽돌·페트병을 투입하면 1회당 물 1~1.5 l를 절약하고, 세면대 수전 절수기기를 설치하면 물 70%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

명이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11월 수도 사용량 기준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017t에서 1400t으로, 북구청은 720t에서 504t으로 12월 들어 각각 30% 안팎을 절약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관계자는 “광주시의 이례적 가뭄 상황에 유동인구가 많은 기관부터 발벗고 나섰다”며 “내년에도 절수 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물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 광주시 수질개선과장은 “계속되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물을 절약해야 한다”며 “시민들도 가정 내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등 생활 속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

과오납 축소 노력 등 호평...특별교부세 6000만원 확보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14개 그룹으로 나눠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했다.

광주시는 특·광역시 그룹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과오납 축소 노력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징수전담팀 설치, 업무개선토론회·업무보고회 실시 등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희 광주시 세정과장은 “이번 결과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청춘 대학도시 영상공모전 시상 28일 오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청춘 대학도시 영상공모전 시상식에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가운데)이 참석, 수상자에게 시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광주·전남 대학 7곳, 내년부터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도-15개 기관 협약 전공과목 신설...전남형 상생 일자리 창출 기대

내년 3월부터 한국에너지공대와 조선대, 동신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초당대 등 7개 대학에 해상풍력 융합전공이 개설된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전남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발맞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 것으로, 전남형 상생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는 28일 전남지역 15개 기관과 산·학·관 공동 업무협약을 맺고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기관은 전남도를 비롯, ▲지역대학(목포대, 한국에너지공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동신대, 초당대, 전남도립대, 목포과학대, 한국폴리텍 전남캠퍼스) ▲발전사(서산해상풍력발전사업의제,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 ▲제조기업(두산에너지서비스, 현대실산산업) ▲유관기관(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등 15개 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전남 6개 대학과 조선대는 내년 3월부터 관련 학과 3-4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융합전공을 개설해 운영하는 한편, 향후 전문학과 신설, 재직자 교육, 특성화고 취업패키지 교육 등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에서는 ▲융합전공 개설·운영 등 분야

별 특화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및 실무형의제 운영 ▲인력수요정보 제공 및 지역인재 채용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 등 기관별 특성화된 역할을 강조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도내 지역대학을 돌며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학별 특성화 방안 등에 대해 기획안을 구성했고 4월부터 대학 교수진 중심의 실무형의제를 구성하는 등 대학별 인력양성 세부 추진 방향을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공모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과제’에도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이 반영,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을 활용한 실행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전남도, 임업인 4000명에 첫 직불금

1인당 207만원 총 83억원...임가 경영안정·소득향상 기대

전남도가 임업인 4000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83억원을 지급한다. 1인 평균 207만원으로 임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연간 농업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으로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여야만 한다.

임업직불금은 임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규모직불

금이 2억원, 임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이 각각 63억원과 10억원, 면적·육림업 모두 지급될 금액은 8억원이다.

전남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담당자 교육 및 합동점검과 엄격한 요건 심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은 그동안 법률 제정부터 제도 시행까지 임업직불제 시행을 위해 힘쓴 모든 임업인의 노력의 결과”라며 “임가 소득향상과 임업 운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모집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학과	23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0
사범	유아교육과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6
총계		4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2. 12. 29(목) ~ 2023. 1. 2(월)
- 전형일: 2023. 1. 9(월)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금)
- 전형일: 2023. 2. 6(월)

사랑과 감사의 68년 1954~2022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1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